

# 우리나라 民俗舞의 服飾構造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dress, ornament and costume on the Korean folk dance

圓 光 大 學 校

Won Kwang University

專任講師 高 福 男

Instructor Ko, Bok Nam

| 目                                  | 次                          |
|------------------------------------|----------------------------|
| I. 序 論                             | 3. 鶴, 蓮花臺, 處容舞             |
| II. 研究調查 및 考察                      | 合設의 歷史的 由來,<br>服飾構造 및 服飾.  |
| 1. 舞樂의 背景 및 分化                     | 4. 鳳山탈춤의 由來, 服<br>飾構造 및 服飾 |
| 2. 舞樂擔當者로서의 樂<br>師, 樂工 및 民俗演戲<br>者 | 5. 現在의 保有者                 |
|                                    | III. 結 論                   |

### Abstract

This thesis thies chiefly to investigate and study about the historic transition of the dress and ornament which is based on the costume of the folk dance.

The folk dance is divided into the styld of the Court and common people. I Investigated and studied on the description of Hak-mu (the crane), Ryun-wha-dae (the lotus blossom) and chu-yong dance (a mask drama) which are the typical models among the folk dance on the view of the scale and history of playing.

This research materials are made on abstract of Ak-Hak-Gyae-Bum (the pattern

of the music which was compiled by Sung-hyun on the King of Sung-Jong of Yi dynasdty) an selected from the conservation material and playing in the National Classical Music Bureau nowadays.

I am sure the understanding the style of common people i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the folk dance which is specified and conserved by cultural property control Bureau.

Generally Bong-San mask dance is the typical mask drama on the view of the scale and transmitted, which occupies the wide range of the folk dance. So I selected it as the research material.

I am interested in the historic origin and the structure of the dress and ormant conserved till the nowadays and so can catch the hidden conception about the colour and concern of religion in the Korean peculiar living consciousness. From this point, the study of the classical folk costume is activated in this part and I hope this poor article will become a small assistance for another study.

## I. 序 論

우리나라의 民俗舞踊服에 對한 關心을 갖게 된 것은 平素에 뜻도 있으려니와, 해마다 文化公報部에서 主權하는 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 우리 固有의 舞踊을 볼 때, 그 服飾에 對해서 研究하는 것이 우리의 古代 服飾을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民俗舞踊服의 研究는 우리 民族의 文化나 生活을 理解하는데 必要할 것이며, 反對로 民俗舞의 服飾을 研究하는 데에 우리의 歷史的인 모든 背景이 所重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民俗舞에도 宮中樣式과 庶民樣式으로 大別할 수 있겠는데, 두가지가 다 現在 傳來되고 있는 種類가 많은 수에 달하므로 이번엔 初步段階로서, 우선 宮中樣式에서 그 規模가 傳統으로 보아 代表格이 되는 「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에 對해 調查 研究하고, 庶民樣式으로 수 많은 假面戲 中에서 「鳳山탈춤」의 服裝에 對한 研究를 하고자 한다.

前者에 對해서는 李朝成宗祖매의 樂學軌範등에 記錄이 있고, 國立國樂院과 古典舞踊研究所에서 保護 育成되고 있어 調查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後者は 文化財 管理局 指定 無形文化財 17號이고, 1967年 6月 17日에 指定이 되었으며, 文獻으로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百濟매의 伎樂등과 연관이 있다는 點 外에는 服飾에 對한 記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古老들의 口傳에 依하면, 그 形態나 옷감에 對해서는 옷이 바뀔적마다 다소 변화가 있겠으나 그 色에 있어서만큼은 約束이 철저했다 한다.

또 두가지 舞踊에서 모두 옷에 대한 관심이 크지 못한 것은 옛부터의 우리네 生活習慣 탓이라 믿는다.

이제라도 衣服을 整理해 두어 이번같은 不便없이 여러 사람이 쉬게 民俗舞踊과 服飾을 알고, 이를 계기로 民俗服 全般에 對한 研究의 初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論文에 임한다.

다른 分野보다도 더욱 이 分野의 關係 文獻이 적고, 오래된 옷에 대한 資料도 아주 稀貴해서, 모든 服飾에 대해 歷史的 變遷過程에 따라 細密히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Ⅱ. 研究調査및 考察

民俗舞의 衣裳을 그 源泉과 時代的인 變化, 他衣服과의 關係를 究明하려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 舞樂自體의 研究도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舞樂은 宮中樣式과 民俗樣式으로 二大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舞樂을 擔當하는 樂師와 樂工服色에 對해서 詳考하여야만 民俗舞 衣裳의 眞實된 면모를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우선 舞樂 그 自體에 對하여 大略의 言及을 하고자 한다.

### 1. 舞樂의 背景

韓國音樂은 上古로 거슬러 올라가면 巫系音樂과 關連을 맺게 된다(註 1 張師助, 韓國文化史大系「韓國音樂史」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0, 9971)

上古時代의 音樂에 對해서는 詳究하기 어려우나 三國志에 「夫餘, 高句麗는 年中行事로서 一定한 時期를 擇하여 歌舞로서 祭天하는 風習이 있었다.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舞天 등 이 그것이다.」(註 2 陳夷 三國志 魏志 東夷傳)라고 써어 있다.

李惠求 博士는 馬韓의 祭鬼神은 즉 굿이고, 이 굿은 農作에 關한 것인 까닭에 五月의 江陵 別神굿 같은 것과 九月의 도당굿은 그 遺風이며 數十人이 춤추고 시끄럽게 노는 광경은 굿중 패의 鼓樂에 비길 수 있다 한다.

또 張師助씨는 上古의 音樂이 어떤 것인지는 確實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魏志의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舞 相就歌戲」라는 글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노는 것을 나타내며 굿의 모습을 彷彿케 한다고 한다.

現在 慶尙道地方 民俗으로 傳하는 「東方舞樂」은 高句麗에서의 原始舞樂에 該當하며, 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民俗사이에 그 系統을 이어 傳하고 있다고 보인다.



〈圖 1〉 通溝舞踊塚 舞蹈圖

圖1은 高句麗時代의 壁畫이며, 外來文化에 젖지않은 純粹한 우리나라 古代의 舞蹈이며 衣裳이라 할 수 있다.

新羅統一後에는 百濟, 高句麗의 音樂을 吸收하여 많은 發展을 보였으며, 唐樂의 影響을 받았고, 崔致遠의 「鄉樂雜詠五首」는 우리의 鄉樂에 金九, 大面, 獅子舞같은 것이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高麗代에는 三國時代의 傳統위에 叡宗때 宋에서 大晟樂이 들어왔다. (註 3李忠求,

韓國國樂研究 國民國樂會 1957 p85) 高麗는 佛敎의 普及과 興隆에 힘입은 바 커서 貴族階級이 確立되었고 華麗한 生活은 俗樂을 流行시킨 結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李朝에는 初期 太祖때 音樂을 다스리는 雅樂署를 둠으로서 樂政의 첫발인 셈이다. (註 4太祖實錄, 第一元年 七月條), 世宗때는 朴堧등과 같이 慣習都監, 樂嚴都監을 設置하여 周代 以來의 古典에 依한 새로운 調査 研究가 計劃되었다. 特히 世宗 12年에는 新制雅樂을 만들었고, 이 音樂은 世祖때 처음 使用했다. 以上으로 國樂이 成立되었고, 더욱 集大成한 것은 成宗 24年(1493年) 成倪등이 撰進한 樂學執範이다. 이는 李朝 最高의 樂典이며, 東洋 古樂의 研究上 가장 貴重한 信憑할 만한 大典據이다.

壬辰丁卯亂 以後에 音樂의 中心은 宮廷으로부터 庶民에 옮겨져 器樂에는 正樂外에도 散調, 農樂, 聲樂에는 各地의 國謠 以外에 歌詞, 詩調, 歌曲등의 “노래”와 특히 末葉에 정리된 판소리 雜歌등 “소리”가 있었으며, 人形劇, 假面劇등의 演戲와 舞, 法舞 其他의 舞蹈이 또한 音樂과 긴밀한 關係를 맺으면서 維持되었다. 以上으로 韓國音樂이 發展되어온 過程 및 그 背景을 살펴보았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音樂을 宮中樣式과 民俗樣式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째로 宮中樣式은, 高麗때 中國에서 들어온 雅樂이 宮中音樂이라 하겠으며, 雅樂은 祭禮雅樂, 唐樂, 鄉樂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現在 文廟祭享에 쓰이는 雅樂은 俗樂이 아니고 周時代의 雅樂을 본뜬 것이다(註 5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p84).

鄉樂은 우리나라 音樂을 唐樂에 對하여 이르는 말로써 韓國 傳來의 音樂일 뿐아니라 唐 以前의 西域系統音樂과 佛敎系統音樂도 包含하고 있다(註 6 李惠求, 後揭書 p87) 鄉樂舞는 宮中舞에 屬하여 唐樂舞의 對가 되는 것으로 處容舞, 舞鼓, 春鶴囀, 鳳來儀, 牙拍舞, 饗飯舞등이 이에 든다.

둘째로 民俗樣式은

現存한 民俗舞로서 호가 되는 것이 假面戲이다. 그것은 現在 文化財 管理局이 主觀하는

無形文化財中 舞樂에 關係되는 것은, 指定한 것만도, 2號 楊州 別山臺놀이, 3號 꼭두각시 놀음, 6號 統營 五廣大놀이, 7號 固城 六廣大놀이 9號 思山別神祭, 12號 晉州劍舞, 15號 北青 사자놀음 17號 風山탈춤, 21號 勝戰舞, 27號 僧舞, 34號 康翎탈춤, 39號 處容舞, 40號 鶴舞 등을 들 수 있다. 이 中에서 假面戲에 屬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에 對한 調查가 民俗舞樂의 調查가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假面劇의 細部的인 研究보다는 全體的인 흐름을 살리어 그 衣裳에 對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前記한 바와 같이 우리 고유의 假面戲가 高句麗의 西域樂, 百濟의 伎樂 같은데에 起因하여 高麗를 거쳐 李朝에 傳承되었으며, 李朝에 들어오서 樂政이 成立되고, 樂器가 發達함에 따라, 이런 民俗놀이도 古來의 것보다 많은 變貌를 가져 왔으리라 생각하며, 現今에는 極度로 세찬 西洋文化속에서 겨우 命脈을 維持하고 있으며, 그 衣裳을 볼 때에, 精誠들어 만든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그저 색깔이나 形態만을 겨우 나타낼 뿐인 경향이 보인다.

## 2. 舞樂擔當者로서의 樂師, 樂工 및 民俗演戲者

우리나라 上古時代에는 一般民衆과 樂工의 分化는 없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民俗劇이나 農樂의 演戲者가 一般 農軍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나 貴族王國이 서자 樂師, 樂工의 分化는 이루어지고, 이들이 舞樂의 擔當者로 등장하였다.

伽倻의 樂師 于勤이나 그의 밑에서 樂을 배운자들이 바로 그런자들이다.

高句麗의 樂師들이 中國에 들어가 演戲를 한 것이라든가, 日本에 건너간 味摩之 등 樂工들은 이런 分化過程에서 高度의 技術을 쌓은 자들이다.

王山岳이나 玉寶高等은 樂器를 中心으로 한 天材의 樂師들이다. 또한 新羅 統一期에 大樂署가 이루어 지고 여기에 所屬된 樂工들이 宮庭樂의 擔當者가 되어, 傳統은 줄곧 高麗, 李朝까지 이어 내려왔다(註 7, 金電旭 韓國歌舞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또한 옛날 國樂人들은 아들에서 손자도 그 業을 이어받아 世襲제도를 밟았다. 여기에도 문벌이 있어서 樂師와 樂工 집안이 區分되고, 樂師의 子孫은 지도층인 典樂으로 들어가서 樂師로 승진될 수 있었고, 樂工의 子孫은 例外없이 樂工이나 樂生으로 들어가 職責에서 더 이상 發展하지 못하는 것이 常例였다(註 8, 張師助 韓國樂器大觀 韓國國樂學會 1969年; p 1969).

또 地方의 民俗演戲者들은 후로 妓生이나 무당의 남편인 화랭이들이 지방 광대였고, 主要行使가 있을 때는 한달 後에 서울에 가서 춤을 배워 왔다 한다.

## 3. 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

우리나라 舞踊의 여러가지 宮中樣式중에서, 그의 規模가 크고, 歷史的의 由來도 길고,



〈圖 2〉五方處容舞와 蓮花臺 童子

文化財管理局의 指定 無形文化財인 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을 擇하여 代表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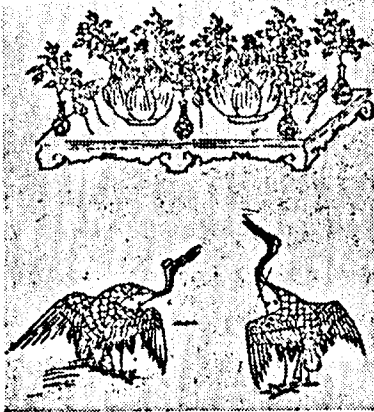
### 가. 鶴 舞

#### ① 歷史的 由來

鶴舞에 對한 精確한 發生年代나 '作者는 찾아 볼 수 없으나, 慵齋叢話에 보면 「世祖遂增其制 大合樂而奏之(中略)樂奏步虛子 雙鶴隨曲節 翔翔而舞 就啄蓮萼雙小妓 排蓊. 出 或相向 或相背 跳躍而舞 是謂動動也 於雙鶴退」라고 記錄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世祖가 이미 演行하고 있던 行事를 더 強化하고 補充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니, 벌써 그 以前 國初의 作業이 整頓되어 나라가 安定된 뒤에 鶴舞와 處容舞, 蓮花臺 舞등이 같이 宮中行事로서 演出된 것을 推定할 수 있다.

獨舞로서 추었던 것을 明示하는 것으로 樂學軌範 卷之五 時用鄉樂呈才圖儀에 鶴舞의 記錄이 있고, 現 國立國樂院에 保存되어 있으며, 韓末 哲·高宗代에 宮中 進宴에서 使用되던 宴處記에도 그에 對한 記錄이 있다. 以上에서 詳考하여 보면 鶴舞의 發生年代는 대개 高麗 末이며 李朝 成宗때(1439年頃)에는 處舞蓮, 花臺舞와 더불어 크게 發展을 보았고, 그 뒤 宮中에서 成長되어 오늘날까지 傳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圖 3〉鶴, 蓮花臺舞

#### ② 鶴舞의 特徵 및 오늘날의 자취

가.) 鶴舞는 우리의 傳來한 탈춤중에서 날짐승(鳥類)의 춤으로는 有一無二하다.

나.) 宮中舞의 大作인 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에도 한 領域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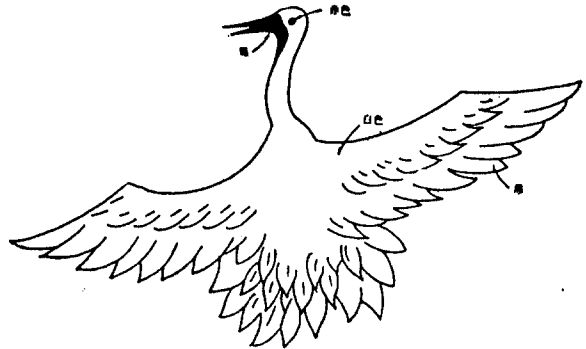
#### ③ 鶴, 蓮花臺, 處容舞의 服飾構造

##### 가. 鶴舞服

樂學軌範 卷之八에 보면 「鶴을 꾸미는 법은 몸의 거죽은 대나무로 하고, 종이를 바르고, 목은 가는 대로 엮고 박은 布로 싸고 안에 나무를 박고 노끈으로 아랫 입술을 꿰달아 흔들리게 하고, 한 기러기 털을 붙이고(靑학에는 靑色을 물들인 것), 날개용으로는 鶴의 날개를, 꼬리에는 검은 닭꼬리 푸른 별을(靑鶴에는 녹색별) 양 무릎에는 빨간 치마를 입고, 빨간襪과 빨간 나무다리(靑鶴에는 청치마 靑襪 녹색 나무다리), 흰 천을 배에 수직되게 잘라 무릎까지 되게하고(靑학에는 靑色천) 가슴 앞과 양 날개 아래에 조그만 구멍을 뚫는다.」고 했다. 以上으로 보아 사람이 鶴의 形體를 뒤집어 쓰는 것이 된다.



〈圖 4〉樂學軌範中の鶴



〈圖 5〉鶴舞服 製圖

나. 蓮花臺舞

① 蓮花臺舞의 歷史的 由來

高麗史 卷 71에 「蓮花臺 期出於拍跋魏用 二女……」라 쓰여 있으며, 본래는 蓮花臺라 하였고 拓跋에서 發生되어 魏나라에 流入되어 推엿든 것이었다. 또 韓國史 第卷에 蓮花臺舞는 中國에서 約 二世紀頃에 發生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어느때부터 우리나라에 依해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高麗史 71에 記錄이 있고 또 같은 記錄이 樂學軌範에 高麗史樂志 唐樂呈才라 하고 또 時用唐樂呈才圖儀라 하여 많이 變更되고 整頓된 笏記를 볼 수 있다.

또 進宴儀軌 卷一에

「麗朝有 蓮花臺舞 用二女鮮衣 唱藏二蓮花 中花 而後見 載蛤笠著丹衣 分兩隊迭舞我 朝宴禮亦倣用之」라 했다.

上記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高麗史나 樂學軌範에는 蓮花臺라 되어 있으며, 進宴儀軌에는 비로서 蓮花臺舞라 되어 있고, 高麗期부터 이 춤이 있었든 것을 李朝에 와서도 宴禮에 亦是추었다 한다. 또 樂學軌範 卷之五에는 國家大事인 儼禮위에 依例히 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을 추었다고 되어 있다.

또 國立國樂院 笏記에는 舞姬들의 身分과 이름까지 記錄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李朝末葉까지도 宮中에서 演戲였음을 알 수 있다.

② 蓮花臺舞服

1) 衣

樂學軌範에 衣는 世宗朝에 쓴 中華裳과 같다. 庚子年에 復立한 童子의 舞踊服은 各色的 比단으로 되었고, 확 짝며 꺾은 꽃무늬를 놓고 안에는 紅色비단, 여름에는 黑色麻



〈圖 6〉衣



〈圖 7〉中單

布를 사용한다. 衣는 黃, 綠, 紫, 藍, 桃紅의 五色綵를 쓰고 안은 紅色비단, 가슴과 등에는 藍色 金線을 치고, 활짝핀 꽃이나 혹은 구름무늬를 짜며 안에는 白色 비단을 가장자리 아등에겐 남색실로 박은 장식을 쓴다 했다. 또한 그곳에 써있는 치수는 現在로 거의 같게 사용되며, 色에 對해서도 黃, 綠, 紫, 藍, 桃紅의 五色을 갖추어 쓰며 바탕의 옷감은 純絹를 써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만들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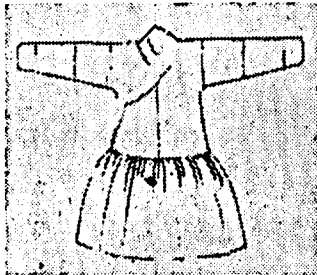
2) 中 單

樂學軌範에 「中單은 도련한 白色 비단을 쓰고 옷깃에는 黃, 綠, 紫, 藍, 桃紅의 五色단을 대며 이어서 흑색 비단을 쓴다.」고 되어있다.

3) 裳

裳의 치수는 段紅繡長 二尺六分, 長 一尺四寸五分, 綠廣 一寸五分으로 되어 있으며, 裳은 紅段을 쓰고 이어서 黑色綵를 쓰며 안에는 紅色綵를 쓴다고 樂學軌範에 쓰여 있으며, 現在에는 그대로 만들어 쓰고 있다.

4) 防 衣



〈圖 9〉防衣

防衣는 紅色 綿과 青色 綿을 쓰고 안에는 黃色 綵를 쓴다.

5) 纏 帶

纏帶는 白色모시로 만든다.

6) 面 歛

面歛은 黑色 綿을 쓰고 안에는 白色 綵를 써서 만든다.

7) 屨 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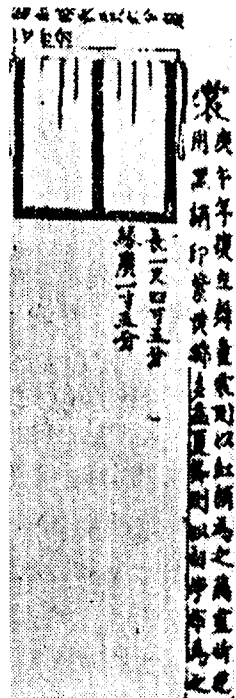
鞋는 白色 綵를 쓰고 아래에는 青色 綿을 쓰고 전후 및 주위에는 紅色綿을 써서 만들어 신는다.

以上과 같이 蓮花臺舞 服들은 만들어져서 現 國立國樂院에서 使用되고 있다.

다. 處容舞 및 服裝

① 處容舞의 歷史的 由來

三國遺事의 處容郎條에 處容舞가 新羅憲康王때 지금 蔚山 地方에서 發生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춤의 發生과 並行해서 龍의 說話, 疫神을



〈圖 8〉裳

〈圖 10〉纏帶





〈圖 11〉面斂



〈圖 12〉雲鞋

막은 風俗, 詩歌의 發生, 佛寺의 創建등여 러가지의 文化的 遺産이 派生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東京雜記의 記錄에도 그 來歷이 新羅時代인 을 살필 수 있다.

高麗末의 牧隱集 33에 記錄된 것을 보면 處容舞와 山臺劇이 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高麗初부터 末까지 燃燈會와 仲冬에는 八關會가 開設되어 國家的인 큰 行事의 百百戲歌舞中의 하나인 것 같다.

備齋叢話 卷一의 記錄으로 보면 處容舞가 처음 新羅때는 검은색 道袍에 紗帽를 쓰고 추었으며, 뒤에 五方處容舞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樂學軌範 卷六五 時用鄉樂呈才圖儀에는 規模가 尅大하고 壯嚴하며 豪華絢爛한 格式이나 法度가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同書에 蓮花臺와 鶴舞, 虛容舞가 個別的으로 한가지씩 따로 演戲할

수 있게도 되어 있다.

朝鮮佛敎通史에 記錄된 것을 보면, 虛容舞의 發源地인 慶州에 지금으로부터 百年前後에도 民間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虛容舞의 오늘날의 자취

現在의 處容舞는 1,922年頃 李王職雅樂部 雅樂師인 金寧濟, 成和鎭, 李壽卿등 세 분이 李朝 成宗때 發刊된 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笏記에 있던 것을 그대로 在現시킨 것이라 한다 여기서 樂學軌範 所載 및 現存 處容舞 冠服을 分設하면,

① 虛容假面은 挿花幘頭로서 高麗以來의 樂士의 舊制이다.

② 衣는 宮袖 彩花團領으로 前裾가 後裾보다 짧다. 衣裾下端이 一尺程度 갈라졌다. 缺誇袍의 殘滓이다.

③ 衣는 黃色, 團領은 紅色, 袖口는 밖으로 부터 藍色, 紅色의 色同이다. 앞 領에 紅色 바탕의 綠色襪의 團領이 붙어 있다.

④ 上衣에는 옷고름이 달려있고, 窄袖, 袖口에 三尺餘의 汗衫이 달려있는. 高句麗 壁畫의 그림과 같다.

⑤ 吉屐은 新羅女服의 머와 같고, 高麗의 勒巾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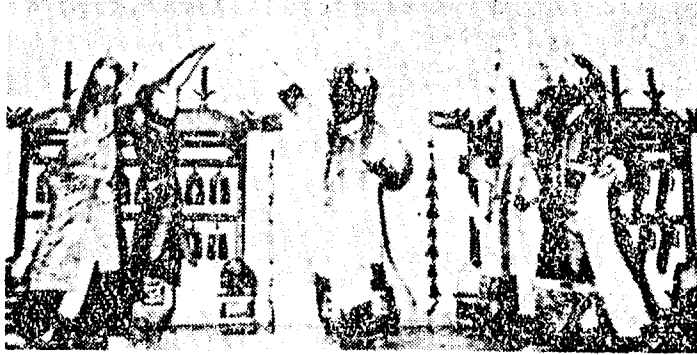
⑥ 袴(裙)은 現女子의 고장이와 같고, 무릎에 彩花四角 蔽膝이 붙어 있다. 羅代의 男裙과 같다.

⑦ 裳은 黃, 綠, 紅의 條幅으로 되어 있다. 앞만 가린다.

⑧ 帶는 花樣 角帶이다.

⑨ 天衣는 女服의 霞麗와 같이 華麗하다.

⑩ 繡鞋에 碁가 달려있다. (註 9)金東旭,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 東洋學, 단국大學校 1971 p. 40 以上으로 보아 이는 相當히 古色을 띠고 있어 高麗初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李朝의 服色은 아니고, 그 이전의 古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며, 여기에 어찌면 新羅의 古樣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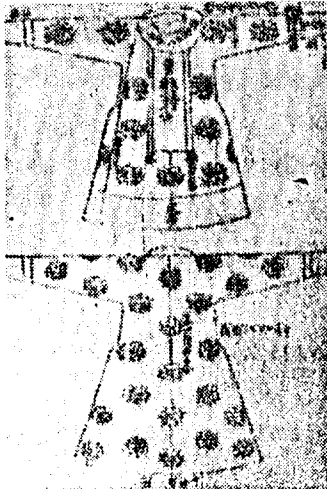


〈圖 13〉 處用舞演戲장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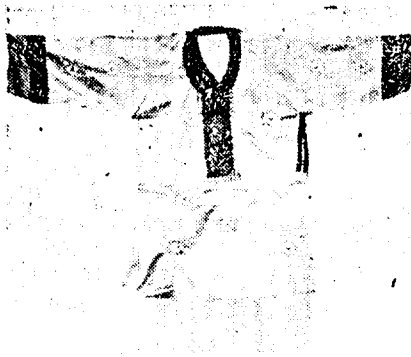
㉑ 處容舞 服

1) 衣

衣는 靑, 黃, 紅, 白, 黑의 5가지 色이고 앞의 길이는 짧고, 뒤의 길이는 길다고 樂學軌範에 쓰여 있다.



〈圖 14〉 衣



〈圖 15〉 現在使用中인 衣



〈圖 16〉 天衣

2) 天 衣

樂學軌範에 天衣로는 꽃이 가득찬 녹색 천을 쓰고 속은 홍색 비단을 쓴다고 되어 있다.



〈圖 17〉 吉慶

3) 吉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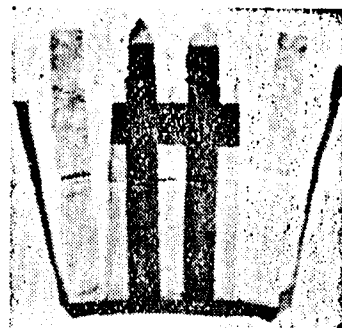
길경은 겉과 안을 같이 붉은 비단을 쓰고 양 끝에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녹색천을 댄다고 樂學軌範에 쓰여 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쓰고있는 길경은 폭 12cm, 길이 285cm로 되어 있다.

4) 裳

樂學軌範에 「裳用 黃絹 裳中用 綠段爲 幘 幘下以 紅金線黃絹連補幘 上○紅絹 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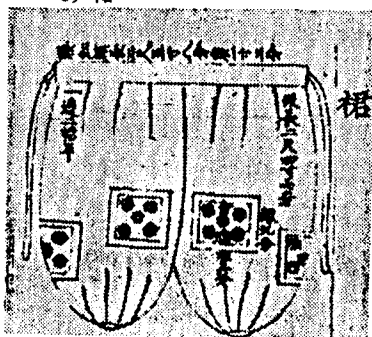
〈圖 18〉 裳



〈圖 19〉 現在 사용하고 있는 裳

二纓端連線段(五方同並) 즉 「치마로는 黃色 비단을 쓰고 치마 中央에 綠色천으로 휘장을 달고, 휘장 아래는 紅色에 金線을 친 黃色비단을 비스듬히 달고, 휘장위에는 ○홍 비단으로 끈 들을 달고, 끈 끝에 비스듬히 綠色단을 댄다」고 했다.

5) 裙



〈圖 20〉 裙

樂學軌範에 「裙東比用紅段 方膝用黑 段爲綠西南用黑段 方膝用紅段 以綠段爲綠 中用 藍段 方膝用紅段 以綠段爲綠」 즉 「裙은 東化用으로는 붉은 천, 무릎에는 검은 천을 대고 그둘레에는 綠色을 대며, 西南用으로는 검은천에 무릎에는 붉은 천을 대고 그둘레에 綠色을 대며, 中央用으로는 藍色 천에 紅色, 둘레에는 綠色을 댄다」고 했다. 裙에는 現女子의 고장이와 같고, 무릎에는 彩花 四角膝 이 붙어 있다.

羅代의 男裙과 같다 한다. 註 金東旭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 東洋學誌 1971 檀國大)

6) 汗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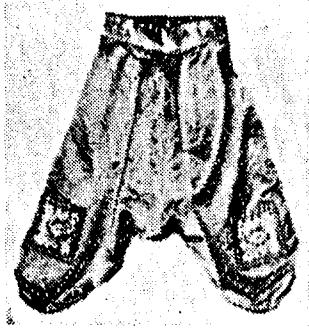
汗衫은 도련한 白色비단으로 한다.

7) 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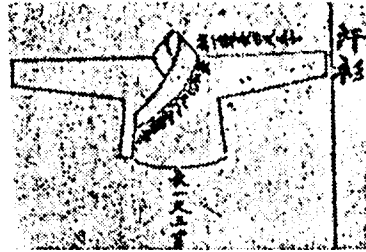
帶는 紅色 가죽띠를 쓰고, 고리로는 여주가지를 새긴 나무를 쓰고 쇠를 붙인다.

8) 鞋

鞋는 白色 가죽으로 만들고 끈이 있다.



〈圖 21〉 現在使用的 裙



〈圖 22〉 汗衫

以上으로 살펴본 虛容舞 服은 樂學軌範에 쓰여 있는 것을 참조로 現在 만들어 쓰고 있으며, 國立國樂院에 그 옷이 있다.

#### 4. 鳳山 탈춤의 由來, 服飾 構造 및 各服飾

現在 傳來되고 있는 民俗戲 中에는 假面戲가 大端히 많다. 그 中에서 춤의 歷史的인 觀點에서 戲와 탈춤을 擇하여 研究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춤에서도 衣裳을 알기 전에 먼저 歷史的 由來 및 그 特徵에 對해서 알아 보아야, 그 舞踊의 理解가 容易하고 또 그 服飾 構造의 研究에도 裨益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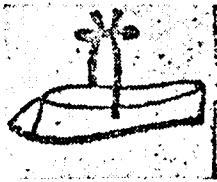
##### ① 鳳山탈춤의 歷史的 由來

日本書紀에 「百濟人 味摩之歸化日 學千吳 得技樂 則安置并 而集小年 令習技樂」(註 11 日本書記 推古天皇 20年)

즉 「百濟人 味摩之가 日本에 歸化하여 吳나라에서 技樂을 배운것을 小年들을 모아 그것을 가르켰다고 되어



〈圖 23〉 帶



〈圖 24〉 鞋 있다.

또 李惠求博士가 日本의 技樂과 우리나라의 楊州山台劇 및 鳳山탈춤에 對해 比較한 表를 보면 (註 12)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1957 國民音樂研究會. p. 226~227

| 日 本       | 韓 國                | 韓 國     |
|-----------|--------------------|---------|
| 技 樂       | 山壹都監劇              | 鳳山탈춤    |
| 治 導       | 고사(1) 상좌춤(2)       | 四상좌춤(1) |
| 吳 公       | 음(3, 4)연뉘과 눈썹제기(5) | 없 음     |
| 獅 子 舞     | 없 음                | 사자춤(5)  |
| 迦 樓 羅 金 剛 | 팔막춤, 침노리(완보)(6)    | 팔막춤(2)  |
| 婆 羅 門     | 사당노리(冠쓴중)(7)       | 사당춤(3)  |

|   |   |          |        |
|---|---|----------|--------|
| 崑 | 崑 | 노 장(8)   | 노장춤(4) |
| 力 | 士 | 취발이(10)  | 취발이(4) |
| 大 | 孤 | 미알할미(12) | 미알춤(7) |
| 醉 | 胡 | 양 반(11)  | 양반춤(5) |
| 武 | 德 | 무당넝두리    | 다리굿    |

※ 數字는 科場順序의 表示임

上記한 것을 비취보고 各科場의 內容을 풀이하여 살핀뒤의 結論으로 日本의 技術이 우리나라의 三國時代와 有關한 것이며(註 13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山臺劇과 技樂)

우리의 現 行民俗놀이인 봉산 탈춤도 원래 隣나라에서 傳播되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그 後 高麗時代에는 技樂이 燃燈때에 절에서 行해 졌고, 李朝때는 儒敎를 重히 여긴 탓인지 技樂 또는 山台劇에 對한 記錄은 없고, 口傳으로 살펴보면, 이 놀이의 中興者로 約 200 餘年前의 鳳山의 史屬 安草木을 이르며, 그가 木탈을 紙탈로 바꾸는 등 많은 改變을 가져 왔으며 그후에는 주로 史屬들이 이 놀이를 擔當하게 되었다 한다. (註 14 李杜鉉 調查, 1965年)

### ② 鳳山탈춤의 特徵

봉산탈춤도 다른 假面舞劇과마 찬가지로 춤이 主가 되고, 이 때의 몸짓(mime)과 動作(action)과 才談(台詞)과 노래가 따르는 舞劇이나, 목중춤은 跳舞로서 活潑하며, 大陸傳來의 健舞의 影響을 생각케 한다.

衣裳은 金辰玉翁(保有者, 1895年生) 幼時에는 자주 巫堂의 옷을 징발하여 썼다고 하나, 목중의 原色더거리 등은 아주 華麗하다. 모두 남자였고, 그 地方史屬들이었으므로 社會的으로 모두 그렇게 賤視되지 않고 그 演技가 世襲되어왔다 한다. 이 舞劇의 內容은 破戒僧, 沒落한 兩班과 下人, 巫堂, 社會, 居士, 其他 庶民들의 登場을 通하여 巫堂과 佛敎信仰과 勸善懲惡의 테두리안에서 好色과 現實暴露의 익살과 웃음을 通하여 以上の 主題를 劇으로 表現하고 있다.

### ③ 鳳山탈춤의 服飾構造및 服飾

鳳山탈춤은 예로부터 鳳山地方의 史屬들에 依해 그 演技가 세습되어 왔고, 처음엔 남자들 만으로 構成되었다가 1920年代에 이르면서 妓生組合이 생긴 후로 남자代身 妓生들이 상좌와 小巫를 맡게 되고, 그 춤이 邑民이나 商人들에게 주로 愛用되었으므로, 그춤에 代한 記錄이 따로 없고, 口傳에 依하여 그 由來나 衣裳을 알 수 밖에 없어서, 未恰한 點이 많으나 故 金辰玉翁 生存當時 그가 製作 使用하던 것에 依하였다.

가. 鳳山탈춤의 配役및 使用衣裳

(1) 上佐-4개

- a. 흰장삼, 소매 끝에 긴 汗衫
  - b. 붉은가사, 흰고깔
  - c. 藍色 치마
  - d. 흰버선과 흰 고무신(原來는 날이 가는 미투리)
- (2) 목중(墨僧, 目僧)-8개
- a. 더거리(저고리와 잠방이 위에 장삼을 입고)장삼을 입지않는 경우에는 팔끝에 약 1m의 汗衫을 단다.
  - b. 끈帶
  - c. 바지(上下 대조색)
  - d. 행천(脚幣)
- (3)居士-6개  
目僧과 같고 가마니나 거적을 말아서 둘러맨다.
- (4) 社堂
- a. 흰 저고리
  - b. 붉은 치마
- (5) 소무(小巫)
- a. 色同 上衣(汗衫 달린것)
  - b. 붉은치마(原來는 綠衣紅裳)
  - c. 큰비녀와 족두리(花冠)
- (6) 노장(승) (老長 <僧>)
- a. 회색 長衫(약간 푸른 빛이 남)
  - b. 붉은 가사
  - c. 송낙
- (7) 신장수(鞋商)
- a. 더거리(黑色)
  - b. 흰색바지
- (8) 원승이  
上下 紅色 옷(上衣는 더거리 식임)
- (9) 취발이(醉發)
- a. 더거리(紅色)
  - b. 바지 ( // )
- (10) 양반(兩班, 샌님)
- a. 白道袍(白長衫을 입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한다.

b. 白 바지

c. 白 행전

(11) 兩班(도령님)

a. 옥색 바지 저고리

b. 靑 快子

c. 靑 巾(黑色)

(12) 말뚝이

a. 靑 巾(黑色)

b. 靑 巾, 靑 바지

(13) 미 알

a. 붉은 치마

b. 삼회장 저고리

c. 이마에 붉은 수건

(14) 영 갑

a. 白 道袍(장삼)

b. 바지, 靑 巾

(15) 덜머리집 (용산 삼개)

a. 노란 저고리

b. 연두색 치마

(16) 南江노인

a. 靑 두루마기

b. 바지, 靑 巾

c. 靑색 큰모자

(17) 巫 堂

a. 푸른 저고리

b. 붉은치마

c. 靑色 快子

d. 戰盆(靑)

(18) 獅子身을 靑색의 굵은 끈으로 장식

#### 나. 鳳山탈춤의 服飾 構造

(1) 上 佐

a. 長 衫

僧의 長衫은 僧의 禮福이며 長衫모양은 두루막 비슷하면서 소매가 넓고 길며 그 위에袈



<圖 25> 上佐

裳를 쓴다.

原來 僧服은 치마를 입지 않는 것이지만, 1920年代부터 妓生들이 上佐役을 맡으면서부터 치마를 입고 長衫을 입었다.

#### 6. 붉은 袈裟, 흰 고깔

僧의 袈裟는 長衫 위에 두르는 것으로, 拂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傳來된 것이며, 깨끗한 精神으로 念拂을 해가며 만드는 것인데, 井條사의가 하나도 막히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註 15 石宙善, 韓國服飾史, 普晉齋, 1971)

이 춤에서는 袈裟를 便宜上 길게 만들어서 쓴다. 빨강 감사 2겹으로 만들며 그 치수는 기장 188cm 폭 12cm로 되어 있다.

고깔은 僧의 禮帽에 쓰는 모자이며, 原來는 흰 명주로 만들어 쓰는 것인데, 이 춤에서는 흰 감사로 만들어 外觀上 보기 좋게 끝과 양 끝에는 곳에 빨강 친으로 장식 고깔의

치수는 가로, 세로 30cm 이다  
치수는 끈 길 이 20cm

#### c. 藍色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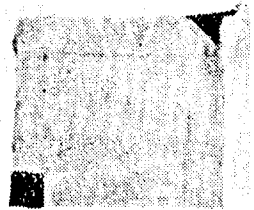
치마(裳)는 裙의 原形이고 裙은 裳보다 裙幅을 더해서 좀더 美化시킨 것이다.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錦裙」의 說話가 있고 三國史記의 色服新羅條에는 各頭品의 女及 平民女의 「內裳」, 「表裳」의 옷감에 關한 記事가 보인다. 또 北史에는 「婦人襦裙加撰」이라고 있고 舊唐書에는 舞人服飾中 「黃裙」이라는 것이 記錄되어 있어서 當時 裳, 裙의 存在는 勿論이고, 그것이 女子專用의 衣服이었던 것 까지도 알수 있게 된다. (註 16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135)

漢族의 衣服은 本來 上衣下裳으로서 衣와 裳이 連續되어 있으므로 裳과 같은 모양의 衣服을 一般적으로 男子로 通着하였기 때문에 「衣裳」이라면 결코 女人衣服만을 意味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朝鮮에 있어서는 이것이 女人에게만 限하여 있어서, 朝 韓兩族의 服飾系統의 差異가 示現되고 있다. (註 17 李如星, 前揭書, p.136)

裙의 形狀은 雙協塚 舞蹈塚等の 女人圖에 있어서와 같이 一般으로 長이 길고 幅은 넓다. 또 腰部에서 부터 裾端까지 길이는 긴 주름을 넣고 따로 裾端에는 一種의 裝飾緣(襖)을 붙인 것도 보인다.

朝鮮의 服裝에 보면 「裳은 아래의 맨위에 입는 옷이며 絹, 木綿, 麻, 毛織, 交織 등으로 만든다. 색은 어떤 색이라도 쓰며 藍色은 儀式用으로 他人에게 敬意를 表示하는 장소에서 입는 치마色이다.」

以上으로 살펴 볼때 이 춤에서 使用하는 치마는 그 치수나 모양이 原來의 치마에서 별



<圖 26> 고깔





〈圖 27〉 舞踊場女人圖



〈圖 28〉 목중

다른 변화 없음을 알 수 있고, 사용한 옷감이 갑사인데, 그 천의 질은 時代에 따라 많은變化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現在에 使用하는 갑사로 合成纖維의 갑사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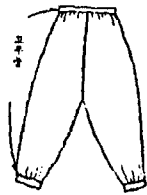
(2) 목중(墨僧, 目僧)

a. 더거리

더거리라는 말은 다른 옷 위에 겹으로 입는 다는데서 즉 「덮치는 옷」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 이 춤에서 墨僧의 더거리는 巫女등의 옷을 빌려 입었는데, 近來에는 바로 만들어 입고 아주 화려한 옷이다.

李杜鉉, 「韓國假面劇」에 보면 「舊唐書와 文獻通考」에서 唐代 高麗伎 舞人の 服飾을 보면, 舞踊手 4인이 머리뒤로 상투를 짜 올리고 이마에 끈지바르고, 黃金귀고리를 장식하였으며 두 사람은 누런 더그레에 붉고 누런 바지를 입고, 극히 긴 소매에 검은 가죽신을 신고 쌍쌍히 서서 춤춘다. (註 18 李杜鉉; 韓國假面劇文化財管理局)

李白의 樂府 高句麗다에도 翩翩舞廣袖라고 읊고 있어 舞踊塚壁畫의 廣袖舞의 모습이나 傳來하는 處容舞服과 現甲 鳳山탈춤의 목중의 服色인 汗衫달린 赤, 黃, 靑, 자주등 화려한 색깔의 더그레와 바지에 符合한다」고 했다.



치수(단위 cm)  
바지길장 89  
통一邊 35  
밑 위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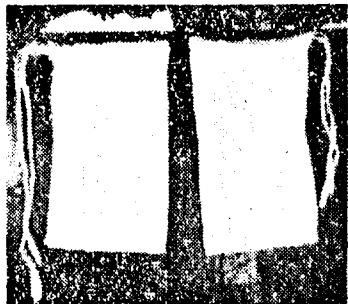
〈圖 29〉 바지

b. 바 지

現行 이춤에서 使用되는 바지는 앞의 그림과 같은데 庶民服의 바지였다 한다. 이 바지는 略式으로 만들기에 容易하게 했으며, 허리외 부리에 고무줄을 넣었다.

李朝 成宗5年(1474)에는 禮服을 갖추거나 外出時에는 꼭 행진을 치도록 했다.

儀式에 좋은 옷으로 입으면서도 행진만은 무명이나 모시를 썼다한다. 賤人들은 옷웃은



〈圖 30〉 行進

물론 행진도 못치고, 대신 끈으로 바지 중간을 동여매는 정도였다 한다.

행진도 季節을 가려 겨울에는 흰 무명, 여름에는 모시, 상제는 베 행진을 치고 僧은 먹물드린 행진을 쳤다.

d. 끈(帶)

帶는 襦에나 裙에도 恒常 使用된 것으로, 記錄에 依하던 高句麗에는, 銀帶, 金釧革帶, 白葦帶, 白皮小帶, 紫羅帶, 素皮帶등 보이며, 百濟에도 素皮帶가 있고 紫, 白, 赤靑, 黃, 白帶등도 보이며, 新羅에는 紅靑, 鍍金袴, 腰帶, 袴帶, 金, 銀, 銅, 鐵腰帶, 繡紐, 羅, 綾, 絹帶, 鳥犀帶 等이 있으며 이것도 三國이 共通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帶의 鈔板, 鉸具를 말한 것이므로 帶地는 皮革이나 布帛등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布帛帶는 燕服用, 平民用, 女人用으로 될 性質의 것이므로 더한층 일반에게 널리 使用되고 發達된 金鈔帶와 함께 華美를 다투게 까지 되었다. (註 19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137-8)

現行使用 帶는 중앙에 화려한 수를 놓았고 뒤로 매게 되어 왔으며 옷감은 紅色 양단 겹으로 되어 있고 치수는 기장 180cm 나비 10.5cm이다.

(3) 小 巫

a. 색동上衣(汗衫달린것)

이 上衣는 現在 婚禮때 新婦가 입는 圓衫과 그 모양이 비슷하며, 앞과 둘레에 이 처져 있는 짐이 다르다 하겠다. 또 원삼은 앞보다 뒷길이가 긴데 비해 그점도 다르다 하겠다.

즉 이 춤에서도 新婦의 image가 나는 점이 있는데 신부의 모양대로 족두리까지 썼었던것 같다. 연두색 길에 色同(다홍과 노랑)의 끝동과 활삼이 달려 있는 짐은 李朝때의 公主와 翁主의 大禮服이었고 庶民層의 新婦婚禮服으로 許容되었던 것이다.



〈圖 31〉 小巫

(4) 僧服(僧)

a. 회색 장삼(약간 푸른 빛이남)

僧服은 변화없이 옛 모양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長衫은 두루막 비슷하면서 소매가 넓고 길다.

b. 붉은 장삼



〈圖32〉 노승



〈圖33〉 신장수

現行 袷袂는 가로 108cm 세로 90cm의 붉은 인조천을 쓰고 있는데 원래의 가사는 크기가 더 크고 2겹이며 빨강 명주를 썼다.

儀禮的인 僧服과 袷袂를 두른 모습은 도 과 같다.

(5) 신장수

a. 더거리(黑色)

모양과 치수는 목승의 더거리와 같고, 소매끝에 汗衫이 달려 있지 않으며 길 바탕이 검정색 양단으로 되어 있다.

옛날의 신장수라면 賤民으로 생각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바지에 액질을 맨 것은 賤民의 차림이 아니다. 이 舞의 신장수는 양단 흉내를 내고 있다.

b. 바지—白色 광목바지를 입었다.

(6) 兩班(선님)

a. 道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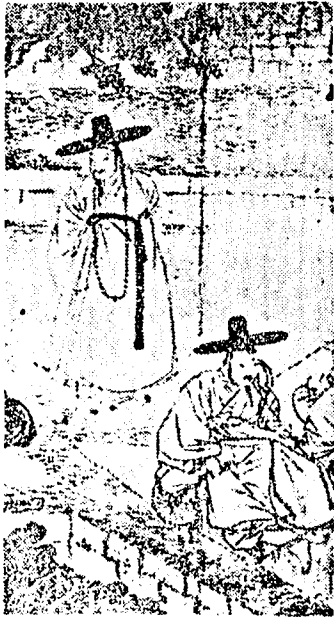
道袍는 옛날 上流階級에서 입던 通常禮服이다. 庶民들이 입을수 없다.

道袍는 우리 옷의 基本形인 同時에 옷감에 있어서 麻布나 모시무명 明紬를 사용하였다. 띠는 細條帶를 매는데 當上官은 분홍띠 紅띠 또는 紫色띠를 매고 當下官은 남색띠, 녹색띠 등을 매고 老人은 회색띠, 흰띠를 매었다.

사진의 양반은 道袍대신 두루마기를 입었으므로 위에 靛袂子를 입었다. 감한 옥색 갑사이다.



〈圖34〉 兩班



〈圖 35〉 道袍

b. 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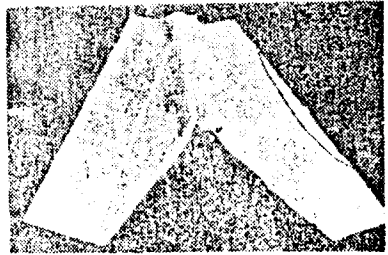
朝鮮의 服裝에 「바지(袴)는 속바지 위에 입으며 여름에는 고복이라 부르고, 絹, 木綿, 毛織등을 사용해서 만들고 近來에는 山東紬, 羅紗등의 넓은 폭을 愛用한다. 색한 白, 黑, 灰色, 茶色등을 사용하고 보통 大人의 치수는 기장 100cm, 사폭 45cm 밑위 47.5cm, 바지통 22.5cm, 허리폭 17.5cm, 허리둘레 10.5cm라고 된 것과 現行의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치수에 별 차가 없음을 알며 現行 바지는 李朝末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7) 兩班(도령님)

a. 옥색 바지 저고리

어른 것과 같은 式이고 치수만 적게 만든다. 이 춤에서 道令의 配役은 대개 10代의 少年을 시킨다. 도령이 아주 어리면 분홍색도 입힌다.

b. 靑戰服—兩班이라는 表示도 된다. 戰服 주위에 은박을 하고 앞 송양양단 및 뒤 송양에도 크게 은박했다. 四갈래로 갈라진 겹이 戰服의 特色이며 戰爭에는 武官들이 모두 입었다.



〈圖 36〉 바지

c. 두루마기—兩班 어른것의 축소형이며 역시 옥색을 입고 아주 어리면 분홍색을 입는다.

d. 복건(黑色)—양반집 도령들이 쓰던 모자의 一種이다. 어른들은 복건위에 갓을 쓰기도 했다.



〈圖 37〉 도령님



〈圖 38〉 말뚝이

(8) 말뚝이

a. 더거리(黑色)

베에 검정을 들인 천으로 만들며 그 옷 모양이나 옷감으로 보아 賤民의 옷이고, 바지에 행전을 하지 못하고, 끈으로 한번 매기만 한 점도 常民을 나타낸다.

(9) 미 얄

a. 삼희잡 저고리

高麗末葉에서 李朝에 이르기 까지에는 三國時代에 볼 수 있었던 허리띠가 고름으로 變化되었고, 李朝時代에는 男女區別을 위한 方法으로 女子 저고리가 짧게 되기 시작하였고, 갓선의 變化로 三回裝 저고리나 半回裝저고리가 생기어 現在까지 내려오고 있다. (註 20 金用瑞 우리나라 服飾의 歷史的 考察, 木浦教育大學 論文集, 1972. p.250)



<圖 39> 미얄



<圖 40> 영감

(10) 영 감

a. 두루마기—道袍가 變하여된 것이며, 원래는 庶民의 두루마기는 삼매나 무명으로 했다. 이 춤에서는 광목으로 사용함.

(11) 덜머리집—덜머리집은 아주 賤民인 술감사에 이르는 말이다.

보통이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12) 巫 黨

우리네의 民間信仰으로서 司祭(Priest), 豫言者(Prophet), 醫巫(Medicman)의 세 가지 面을 가진다.

한국의 무당은 대개 女性이고 男性무당은 「비수」라 하고, 女巫의 男便은 「화랭이」라 한다. (註 21 趙之燕, 韓國文化史 序說, 探求堂, 1964. p.79)

巫服한 巫黨이 入巫하는데 特別한 呪力을 가지고 옷을 말하며, 「巫黨采歷」에 보면 ① 산



〈圖 41〉 무당

바리기 ② 帝釋거리 ③ 別屋거리 ④ 大巨里 ⑤ 戶口巨里  
⑥ 組上巨里 ⑦ 만신말명 ⑧ 以五色旗指揮 ⑨ 唱婦巨里 ⑩  
成造巨里 ⑪ 구몽 ⑫ 뒷전 등의 12가지 굿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한 주로 서울 지방의 巫俗이다.

以上 鳳山 탈춤에서 입는 服飾에 對해 調査한 것을 살펴  
보면, 옷감이나 바느질 등은 時代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이  
많고, 옷에 對한 색깔만큼은 약속이 철저히 지켜져 내려  
왔다 한다.

亦是 舞服의 變化도 一般流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점을  
살펴 알 수 있다.

### Ⅲ. 結 論

以上에서 우리나라의 民俗舞踊에 對한 服飾構造 및 服飾에 對해서 考察하였다.

民倍舞의 根底가 되는 舞樂에 對해 살펴보면 上古時代 및 三國時代의 原始舞樂이 오빠에  
까지 傳해 음을 볼 수 있으며, 新羅統一期에는 唐散樂의 影響을 받았고, 高麗代에는 宋의  
大樂이 들어 왔다. 李朝時代에는 世宗祖부터 本格的으로 音樂을 研究하여 世祖때 까지 國  
樂이 成立되었고, 成宗때에 國樂을 集大成했다.

壬辰, 丁酉亂 以後에 樣式이 擡頭되어 人形劇, 假面劇 등의 演戲와 舞, 法舞 기타의 舞  
踊이 音樂과 긴밀한 關係를 맺으면서 維持되었다. 宮中樣式으로서 樂學軌範에 記錄이 있는  
「鶴, 蓮花擡, 處容舞, 合設」에 對해 考察해 보면 鶴舞는 李朝 世祖 以前부터 演行하고 있  
었고, 그 때부터 蓮花擡·處容舞와 더불어 宮中行事로 演出되었다. 鶴舞의 特徵은 탈춤중  
에서 날짐승의 춤으로 有一無二하다. 衣裳으로는 鶴의 形像위에 날개에는 鶴의 날개문, 꼬리  
에는 검은 닭꼬리를 양 무릎에 빨간 치마를 입고 빨간 나무다리를 가지며, 흰천으로 배에  
서 부터 늘어뜨려 잘라서 무릎까지 닿게 한다.

이 鶴舞服에 對해서는 一般 服飾과는 關係가 없었고, 날 짐승의 形態를 꼭 같이 만들어  
보려한 努力을 열볼 수 있다.

蓮花擡舞는 發生地는 拓跋이고 우리나라에는 高麗朝부터 있었으며 李朝末葉까지 宮中에  
서 演戲되었다. 現在에는 演戲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衣裳으로는 衣는 黃, 綠, 紫, 藍,  
桃紅의 五色 비단으로 된 것으로 世宗朝의 中單과 같으며, 그 외에 中單, 裳, 防衣, 纏帶,  
面斂등을 입고, 雲鞋를 신는다.

處容舞는 新羅時代에 發生했고, 高麗代에는 處容舞와 山擡劇이 같이 演戲되었으나 李朝  
때는 規模가 尠大해지고, 宮中에서 演戲되었으며, 現在에는 國立國樂院에서 保護育成하고

있다. 그衣裳은 衣는 靑, 黃, 紅, 白, 黑의 5가지 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天衣, 吉慶, 裳, 裙, 汗衫 등을 입고 帶를 하고 鞋를 신는다.

다음 鳳山 탈춤은 白濟時代의 伎樂에 그 根을 두며, 李朝에 와서 中興되었고 端午날 밤에 演戲되는 것이었고, 衣裳은 무단의 옷을 자주 빌려 썼다 하며 현재 쓰고 있는 衣裳은 모두 만들어 使用하며, 그 服飾構造로 보아 李朝時代의 遺物들이 많으며 더거리라는 옷이 舞에서는 좀 特異하다 하겠다.

이상의 미숙한 논고를 마치며 앞으로는 民俗服에 대하여 研究하여 이 論文의 未備點의 索責(索責)으로 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金 東 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金 東 旭 李朝前期服飾研究 韓國研究院 1963  
 金 東 旭 朝鮮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 第四卷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金 東 旭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 東洋學 第1卷 檀大出版部 1971  
 金 東 旭 朝鮮中後期の 女服構造 亞細亞女性文題研究 第3號 1964  
 金 用 瑞 우리나라 服飾의 歷史的 考察 木浦教育大論文集 1971  
 李 能 和 朝鮮女俗考 東洋書院 1927  
 李 如 星 朝鮮服飾 白楊堂 1947  
 石 宙 善 韓國服飾史 普晉齋 1971  
 張 師 勛 韓國樂器大觀 文化財管理局 1970  
 李 杜 鉉 韓國假面劇 文化財管理局 1966  
 朝鮮總督府 朝鮮의 服裝  
 柳 喜 卿 高麗服飾 變遷史의 研究 衣類織物研究創刊號  
 任 哲 宰 韓國巫俗研究 序說 淑大亞細亞 女性問題 研究 第10 1971  
 李 惠 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趙 之 薰 韓國文化史序說 深求堂 1964  
 李 惠 求 韓國藝術總攬 「三國時代의 音樂」  
 張 師 勛 「韓國音樂史」韓國文化史大系 高大民族文化研究所